

6주년 창립기념 토론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일 시 : 2015. 10. 22(목) 오후 2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로고) 행정자치부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 1 프로그램(식순).....최옥주 (본 연구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 인 사 말.....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3. 주제발표 : 김 주 섭 박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토 론 자:
 - 1) 김 정 태 센터장 (서울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2) 이 준 우 교 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정 양 범 부 장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 4) 이 수 민 본부장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 5) 김 동 준 센터장 (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5. 부 록 : 본 연구회 연혁/관련 언론 기사 / 공지사항

프로그램

1부.....사 회: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1)개회선언

2)국민의례

3)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4)참석자소개.....사회자

5)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정숙 회장

감사패... 김재학 주) 하이젠모터 회장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최동수 SPC그룹 본부장

공로패... 박범진 본 연구회 고문/前 한성디지털대학교 총장

오영숙 본 연구회 고문/前 세종대학교 총장

김갑재 본 연구회 이사/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조금산 본 연구회 이사

6)축 사.....서 상 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2부.....사 회:이정숙 회장

1)주제발표 : 김 주 섭 박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2)토론자 :

1) 김 정 태 센터장 (서울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 이 준 우 교 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정 양 범 부 장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4) 이 수 민 본부장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5) 김 동 준 센터장 (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3)참관자 질의/ 응답

4)총마무리 발언 : 김 주 섭 박사

인 사 말

결실과 수확의 계절 10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셉습니다.

하늘은 맑고 기온도 약간 선선하여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져 야외 나들이와 사색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창립 6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 대상 연령이 베이비부머세대인데 계절로 치면 지금과 같은 가을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왔다가 이제 옆을 둘러보고 달려온 뒤도 한 번씩 되돌아 보다보니 가야할 길, 살아가야 할 길도 어렵듯이 보일 것 같기도 한 그런 나이가 바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세계 드문 빠른 고령화, 저성장·저금리시대는 부모부양과 자녀들을 위해 할 일도 많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인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퇴직을 앞당겼습니다.

2015년 8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738만 명의 65.8%인 약 486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고 그 중 약 269만 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고용 즉,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량도 부족하지만 좋은 일자리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심각한 청년 실업해결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세대간 일자리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국내외 경영환경과 주력사업의 성장한계 등을 고려하여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10년은 성장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취약계층의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주제로 고용연구기관, 학계, 기업, 지자체, 언론 등 각 분야에서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마련에

일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회가 출범한지 6주년이 되었는데 매회, 매년이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제를 믿고 함께 해 주신 본 연구회 고문님, 부회장님, 이사님, 운영위원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토론회, 행사 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 해주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창립 6주년을 맞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대정신을 찾아 성실히 신뢰를 받는 본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늘 주제발표,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15. 10.22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주 제 발 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김 주 섭 박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

○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경제인구의 부양능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이 감소하게 되어 성장 동력의 쇠퇴를 야기

- KDI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이 0.8%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계자료를 보면, 2016년 3703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빈곤층의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특히 개발 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부분이 빈곤화될 우려가 상존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는 매우 미비한 상황

○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 일본, 유럽 등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나라는 65세 정년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선제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고령화에 대응한 기업의 인사관리 문화와 제도 등도 미비한 상황
- 정부의 지원사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

○ 제도적 보완대책 필요

-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화: 기존 정책의 점검 및 보완 필요

2.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현황

□ 베이비부머의 정의 및 인구현황

○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출생아 수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 코호트(cohort)를 지칭.

-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1955~1963년의 9년 간 출생한 인구 코호트로 판단하고 있으며,
-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1974년, 3차는 1979~1982년생으로 파악하고 있음.

○ 베이붐 세대의 규모는 2012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 (<표 1> 참조)

- 1962년생(53세)가 872,1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5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62년을 기점으로 감소
- 베이비붐 세대는 남녀 모두 53세와 54세의 비중이 12.2%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2012년)

	전체	남성	여성
1963년생	855,387	434,286	421,101
1962년생	872,130	438,307	433,823
1961년생	869,861	435,459	434,402
1960년생	847,812	425,468	422,344
1959년생	812,607	408,545	404,062
1958년생	777,193	390,980	386,213
1957년생	741,018	372,468	368,550
1956년생	702,722	351,636	351,086
1955년생	657,794	325,921	331,873
베이붐 세대 전체	7,136,524	3,583,070	3,553,454

자료: 장래인구추계(2012)

○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세대별로 교육수준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전 세대는 중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58.4%로 가장 높았고, 고졸 학력자 비중은 29.1%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반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은 1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졸자는 23.7%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졸자 역시 44.5%로 증가
- 하지만 중졸 이하 학력자는 31.8%로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감소
- 이후 세대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42.7%로 더욱 높아졌고, 고졸자의 비중도

50.0%로 높아졌지만 중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은 7.3%로 크게 낮아짐

- 이러한 현상은 높은 교육률로 대학진학률이 최근 80%에 이를 정도의 고학력화가 진행된 결과로 판단됨.

<표 2> 세대별 인구구성

(단위: 천 명, %)

		1964~1974년생 (2차 베이붐 세대)		1955~1963년생 (1차 베이붐 세대)		1945~1954년생 (베이붐 이전 세대)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성별	남성	4,334	50.2	3,422	49.1	2,414	48.4
	여성	4,300	49.8	3,543	50.9	2,578	51.6
전체		8,634	100.0	6,965	100.0	4,991	100.0
교육 정도	안받았음(미취학 포함)	35	0.4	116	1.7	323	6.5
	초등학교	146	1.7	828	11.9	1,480	29.7
	중학교	449	5.2	1,272	18.3	1,114	22.3
	고등학교	4,315	50.0	3,097	44.5	1,454	29.1
	대학(4년제 미만)	1,192	13.8	439	6.3	129	2.6
	대학교(4년제 이상)	2,129	24.7	983	14.1	397	8.0
	대학원 석사	299	3.5	177	2.5	68	1.4
	대학원 박사	69	0.8	54	0.8	26	0.5
전체		8,634	100.0	6,965	100.0	4,991	100.0

자료: 인구센서스(2010)

☐ 고용률 현황

- '56~60세의 경우 최근 정년연장법 등에 따라 연령상승에 따른 고용률 하락폭은 크지 않으나,

- 61~65세의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

<표 3> 중장년층 고용률 현황

(단위: %)

		56~60세(2014년)					61~65세(2014년)				
		'98년 (40~44 세)	'03년 (45~49 세)	'08년 (50~54 세)	'13년 (55~59 세)	'14년 (56~60 세)	'98년 (45~49 세)	'03년 (50~54 세)	'08년 (55~59 세)	'13년 (60~64 세)	'14년 (61~65 세)
전체		75.3	75.7	74.0	69.2	68.1	73.7	71.3	65.9	57.2	54.8
성별	남	89.5	90.8	88.2	83.4	82.5	87.8	87.7	80.1	70.7	68.7
	여	60.6	60.3	59.5	55.3	54.4	59.1	54.7	51.9	44.5	4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직종별 취업자 분포

- 베이비부머들의 직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장치기계의 비중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기능원,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 등의 직종에서 10 %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 사무직의 경우 고 연령 일수록 취업자 수가 더욱 많이 감소
- 이와는 달리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자 비중이 높아짐

<표 4> 베이비붐 세대 직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출생연도	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기타
1963	591	26	93	80	71	81	24	66	87	61	2
1962	639	25	93	83	79	85	31	74	95	72	2
1961	624	23	87	74	78	84	34	74	96	73	2
1960	635	22	82	76	79	85	38	76	96	78	2
1959	569	19	70	65	73	74	40	68	87	73	2
1958	532	17	65	59	67	68	39	62	83	71	1
1957	510	17	62	54	64	64	42	59	76	71	1
1956	444	14	50	45	56	55	41	51	67	66	1
1955	442	15	49	42	56	54	44	49	65	68	0

자료: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예코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베이비부머 출생연도별 취업인구)

□ 취업자 수 추계

○ <표 5>는 베이비붐 세대를 1차에서 3차로 나누고 이 세대들이 향후 20년 후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표임.

- 이 표에 의하면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에는 407만 명, 15.7%로 139만 명이 취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전망되면
- 2025년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는 312만 명으로 줄어들고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되는 2030년에는 229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1968~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 469만 명에서 2025년에 435만 명으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37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표 5>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추계

(단위: 천 명, %)

	2020	2025	2030
1차 베이비부머	4,073(15.7)	3,117(12.1)	2,294(9.2)
2차 베이비부머	4,698(18.1)	4,352(16.9)	3,732(14.9)
3차 베이비부머	2,077(8.0)	2,009(7.8)	2,089(8.4)

자료: 장래인구 추계(2012), 지역고용조사

3. 베이비부머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애로요인

□ 일자리 정책 현황

○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고용부)

- 아래 <표 6>은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정리한 내용임.

<표 6> '15년 고용노동부 중장년 관련 사업

사업명칭	사업내역
고용연장지원금 (고용부)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임금피크제지원 (고용부)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장년친화 직장만들기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을 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고용부)	- 베이붐 세대 본격 은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나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증가 -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부)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중고령자와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 고령자 문제에 효과적 대응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장년이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환경에 적응, 체계적인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 핵심노동인구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은퇴 후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넷)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도모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부)	- 고령화 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 미 발간 자료

○ 기술창업스쿨(중기청)

- 기술창업스쿨은 시니어의 경력,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니어의 실전창업을 위한 창업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은 시니어의 경력·특기·희망진로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유망 기술 창업분야별 창업교육 실시
- '14년 부터는 소상공인진흥원 → 창업진흥원으로 전담기관을 변경하고, 생계형 창업(자영업)비중을 줄이고 기술창업 유도를 위하여 제조 지식서비스 업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16년 부터는 스쿨 및 센터의 연계강화를 위해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중 장년 창업저변을 확대시킬 예정
- 추진성과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년 수료생 배출 목표인원 1,550명 대비 '13년 배출실적 1,604명으로 초과달성(103%)하였으며,
- '14년 수료생 배출목표 1,500명 대비 1,555명을 배출하여 목표대비 초과달성(103.7%)

<표 7>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13~ '14년 운영성과

구분	주관 기관	교육 과정	교육			창·취업		
			목표	수료율	달성	창업	취업	계
2013년	22개	67회	1,550명	1,604명	103.5%	84명	48명	132명
2014년	16개	75회	1,500명	1,555명	103.7%	146명	73명	219명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 미 발간 자료

□ 애로요인

- 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 및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애로요인 존재

- 첫째, 베이비붐 고용확대는 정부지원 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인력수요처인 기업에서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있어서의 고연령자 고용기피 현상이 존재
- 둘째, 노동시장 관행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 또한 고령자 고용기피를 부추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공급 제도로 인하여 고령자 고용에 드는 노동비용이 고비용인 구조임.
- 셋째, 정부의 지원사업 역시 정책대상이 명확히 타겟팅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넷째, 고용지원 인프라 부족. 특히 정보인프라의 부족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에 한계

4. 정책과제

-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노·사·정이 공동의 인식하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

가. 기업의 과제

○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에서 기업 홀로 비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임.

- 기업의 비용 부담 방식 중 직접적 방식이 바로 정년연장이고, 간접적 방식이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이 두 방식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고령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 혹은 그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이어서는 곤란함.
- 일본의 정년연장 경험에서 기업의 대응은 1) 임금체계 개편, 2) 교육훈련 강화, 3) 직무개발과 배치전환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 수립의 전제 조건이 바로 개별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년연장의 비용과 고용구조 변화 전망에 대한 정밀한 분석임.

○ 임금체계 개선

-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분석한 거의 모든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혹은 제고를 위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혹은 성과급 체계로 개선해야 하지만 실제 실행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안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함.
-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전 직업생애에 걸쳐 임금연공성을 완화(즉, 근속-임금 기울기의 감소)하는 방식 이고, 둘째는 현재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임. 전자는 호봉간 임금 간격(피치, pitch)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소위 임금피크(wage peak)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인사관리체계 개선

-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경직성 측면에는 연공형 임금체계와 더불어, 연공형 승진관리체계가 있음.
- 직급체계라는 승진 사다리가 연공서열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조치의

충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음.

- 기업은 우선 ‘고성장 및 50대 초반 퇴직’ 시대에 형성된 승진 경로, 승진 기간 등을 점검해서 ‘저성장 및 60세 정년’ 시대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승진 사다리에서 탈락한 장년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의 개발 혹은 재설계, 시간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이러한 인사관리체계의 개선 측면에도 컨설팅 제공이나 매뉴얼 개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장년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정년제도 분석 모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고령화에 따라 하락하게 되어 임금과의 괴리가 커진다는데 있음.
- 이러한 괴리 현상은 정년연장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므로 기업은 장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이 그룹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특히 직무전환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정년연장에 따른 장년 근로자의 직무개발 및 배치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나. 근로자의 과제

○ 앞에서 논의한 기업의 과제가 바로 근로자의 과제임.

-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의 과제는 (생산성에 변화가 없는 한) 결국 노사 간 분배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임.
- 근로자는 정년연장 조치의 최대 수혜자이므로 그 비용의 일부를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임.
- 근로자의 부담 방식은 연공형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체계의 개선에 동참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능력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임.

다. 정부의 과제

○ 기업의 정년연장관련 지원 강화

- 유연한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평가 등의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최근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채용, 배치전환, 훈련 등) 할 수 있도록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제공해야 함.
- 그리고 기업의 유연한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체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개발과 보급, 컨설팅 제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령 직무전환 지원금, 직무분할과 시간선택 지원금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장년 고용지원 개선

- 정년연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정년이 보장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 국한된 논의 일 수 있음.
-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에 보다 많은 정부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취약계층 베이비부머 정책이 필요

- 첫째, 기존 고용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강화를 위해 중고령취업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중고령 관련 사업간 연계,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간 재정투자 비중의 결정 등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의 확대. 중장년 베이비부머들이 처한 상황은 성별, 학력별, 직장경험, 현재 경제활동 상태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움. 따라서 정책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셋째,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중장년 재취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 우선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최근 산업계 주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의 직무능력을 진단하여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기업의 수요가 많은 직무(초과수요 직무)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
- 넷째, 국가차원에서 생애주요 전환기별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안내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전직교육(또는 경력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중고령자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토 론 문

김 정 태 센터장

(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 지원센터)

1.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 도래

우리나라는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은퇴가 시작된 장년층의 주류세대는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부머로 약 720만 명이며 이는 총인구의 15%에 달한다. 서울시에도 146만 명의 베이비붐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대는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은퇴연령은 평균 53세로 집계되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사유는 사업부진과 명예퇴직 등 직장사정에 의한 비율이 45%로 절반 정도이며 정년퇴직자 비율은 8.1%에 불과하다.

최근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은 55~58세로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다. 정부에서 정년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년연장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평균적으로 72세까지는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실여건과 기대사이에 무려 20여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60년대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였는데 2013년에는 81.9세로 30여년 늘어났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분명 축복이지만 준비가 안된 경우 국가나 개인적으로 오히려 큰 재앙일 수 있다.

(표-1) 평 균 수 명

구분	1960	1970	2000	2010	2013
전체	52.4	61.9	76.0	80.8	81.9
남자	51.1	58.7	72.3	77.2	78.5
여자	53.7	65.6	79.4	84.1	85.1

출처: 통계청 2015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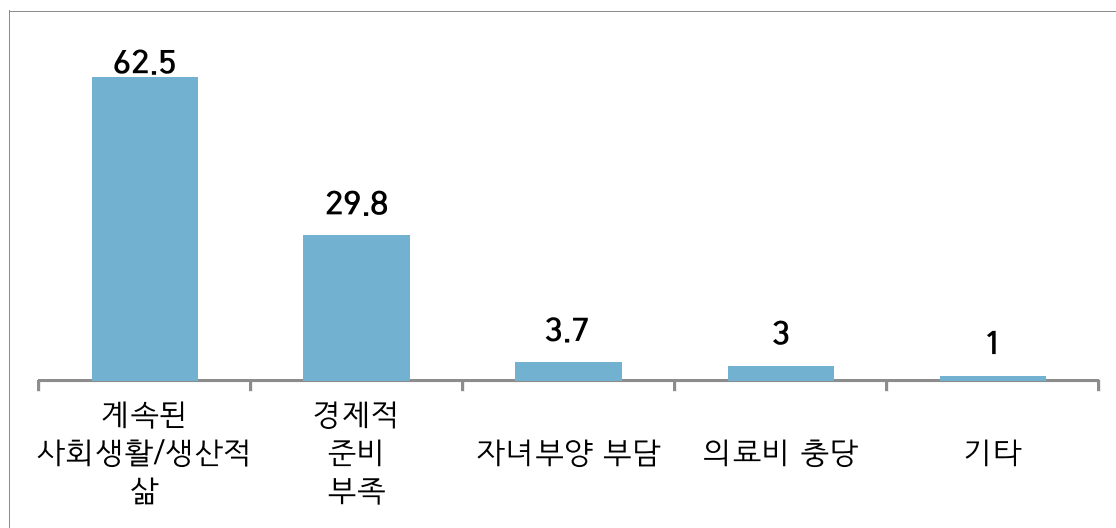
2. 은퇴 후의 생활설계

2014년 12월 기준으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은퇴한 서울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퇴 후 삶에 대한 염려와 고민 1순위는 계속된 사회생활, 생산적인 삶이 62.5%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은 경제적 준비부족 29.8%, 자녀부양부담 3.7%, 의료비 총당 3.0%로 응답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은 직장생활이나 가족부양 등에 매달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

였다. 은퇴 후 경제생활에 불안감이 높아 노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전 세대에 비하여 학력이 높고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미있게 활용코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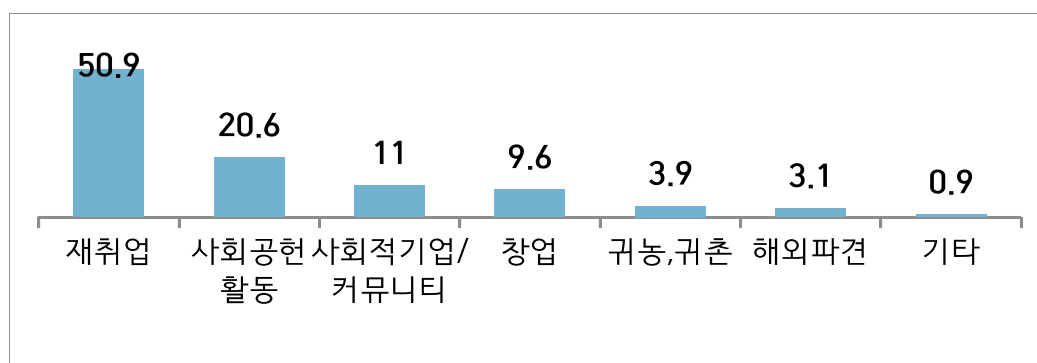
(그림-1) 은퇴 후 삶에 대한 염려와 고민 1순위 (단위: %)



그리고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50.9%가 재취업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사회공헌일 자리 20.6%, 사회적 기업/커뮤니티 11.0%, 창업 9.6%, 귀농·귀촌 3.9%, 해외파견 3.1%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은퇴자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여가생활, 여행, 하고 싶었던 공부 등 소득과는 관련 없는 분야를 원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령이 대부분 60세 이후이며 비교적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퇴연령이 50대 초반이며 미흡한 연금제도, 부모님과 자녀부양의 부담, 부족한 은퇴자금 때문에 상당수가 재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퇴직이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반퇴인 셈이다.

(그림-2) 가장 하고 싶은 일의 종류 1순위 (단위: %)



3.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장년층에 들어서 부모 봉양과 자녀의 교육비, 결혼 비용 때문에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준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은 5억원 이상, 부채는 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평균 자산은 5억 1천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주거 부동산이 3억 8천100만원으로 74.1%를 차지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45.2%이며 평균 부채 규모는 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베이비부머의 월 소득은 230만 9천원, 월 지출은 271만 4천원으로 매달 40만 5천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계수지는 49%가 ‘적자’ 상태이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사가 58.9%를 기록해 파산, 부도와 같은 직장 폐업이나 명예 퇴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는 폐업 사유의 63.6%가 매출 부진으로 나타나 서울 베이비부머의 반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4.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

베이비부머의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013년 2월에 열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현재 각 구별로 동센터가 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이를 2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급증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퇴 후의 인생 설계 · 사회공헌 · 재취업 · 창업 교육과정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일자리와 연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재능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2)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계층별 프로그램

고소득, 전문직	중산층, 일반직	저소득, 취약계층
은퇴설계 컨설팅, 창업지원, 전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분야	병원, 고객상담, 복지시설 등 민간 분야 생계형 일자리 취업지원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 지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지원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인생이모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이나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인생설계 아카데미 : 베이비부머 등 시니어 세대의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변화관리, 경력, 재무, 여가·건강관리, 노후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강의는 수강생 편의를 고려해 평일반, 주말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사회공헌 아카데미 : 금융·기술·홍보·마케팅·교육·경영 등 전문분야 경력 퇴직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은퇴 후 인생설계, 비영리단체 활동사례, 보고서 작성, 컨설팅, 기술, 경영지원, 사례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4) 창업지원 : 은퇴 후 인생설계 수료자, 퇴직(예정)자 중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문과정, 경영관리 등 창업기초 과정, 우수사례특강, 금융·재무관리·홍보·마케팅 등 특화과정, 워크숍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5) 재취업지원 : 퇴직(예정)자 중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교육, 정보화훈련, 휴대폰활용 교육 등 기본교육 과정과 전문직종별 교육을 진행하며 또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향후 활성화 방안

(1) 고령자 친화적인 고용문화 정착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기업,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연공자를 우대하는 오랜 관행을 갖고 있다. 이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표출되고 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명예퇴직을 시킬 경우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연령보다 직무를 중시하는 고용 관행을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년 연장

최근 들어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정년은 60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현재 65세 정년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특히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은퇴 이후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을 시행할 예정이나 산업현장에서는 명예퇴직 등 정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건비 부담완화와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층을 우선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제는 각 부문별로 퇴직연령을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도입해 오고 있다. 근속과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은 생활급 형태로 그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부담 때문에 고령층 고용의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정년 연장 추세에 맞추어 최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이고 결국은 선진국처럼 직무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직무급을 도입하면 직무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연령층이라고 우선 명퇴시킬 명분이 약화된다. 선진국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퇴직 당시의 높은 임금수준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도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퇴직한 장년층의 시장임금은 매우 낮은 편이다.

(4) 생애설계, 전직지원서비스 확충

우리도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이모작은 정부는 물론 국민개개인의 입장에서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시점이 아니라 40대 중반부터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직을 당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미래, 일, 건강, 노후, 재산 등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 기업과 정부도 이에 대한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직지원서비스는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이미지 제고, 재취업 시장 활성화, 내수시장 촉진 등 순기능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직지원서비스가 선진국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큰 이유는 재취업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데 있다. 연령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관행 때문에 일단 일모작기업에서 퇴직하면 스카웃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모작기업에서 최대한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노조나 근로자들은 전직지원서비스는 직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업

도 종업원들의 미래보다는 우선 명퇴금을 통해 큰 마찰 없이 퇴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전직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때문에 경영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고령자의 재취업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토 론 문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제문을 읽고, 귀한 분석과 제언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됨을 말씀 드린다. 주제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토론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늘 그랬듯이 국민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과 ‘미생’으로 대변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하거니와 한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해 왔던 어르신들의 염려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60~70대 어르신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289만 명이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절반이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지어 소득이나 자산이 0원인 어르신들도 무려 201만 명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눈앞의 엄청난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712만 명, 전인구의 14.6%로 경제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 앞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왕성하게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단지 변화(Change)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탈바꿈(Transformation)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혁신적으로 말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이며 당당한 노년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애의 족적에 대한 ‘축하’와 얼마 남지 않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향한 금의환향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 나간 삶의 경력과 연단에 대한 ‘가치부여’로부터 정책이 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흔히 노인복지에서 말하는 ‘부양’이나 ‘원조’ 또는 ‘관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기존의 개념들은 어르신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어르신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노쇠,’ ‘고독,’ ‘소외,’ ‘단절,’ ‘빈곤’ 등과 같은 용어들은 노년을 불쌍한 세대로 낙인을 찍어서 절망과 허무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년을 설명할 때, “여전히 소중한 존재”, “여전히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분”, “참으로 아름다우신 어르신”, “지혜로우신 어르신”, “후손에게 꿈을 물려주시는 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분” 등과 같은 말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인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으로 풀어내어야 한다. 시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만으로는 절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초연금만 갖고 노인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시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어르신이 당당하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르신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하는 창업 수준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차에 소중한 모델을 보게 된다. 화성시가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화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대표사업인 ‘노노카페 커피앤’이다. 화성시가 장소와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지원을 감당하고,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와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은 기아자동차, IBK기업은행 등 민간

기업이 후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은 당당하게 일하며 자신 있게 삶을 펼쳐 가신다.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노카페 커피앤’은 1호점인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을 비롯해 화성시청점, 화성종합경기타운점 등 모두 20개소가 문을 열고 약 150명의 어르신들이 실버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기업과 어르신이 함께 힘을 합쳐 일구어나가는 새로운 창업형 노인일자리사업이 혁신적인 성공 사례로 다가와 있다.

그렇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고령화는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노인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제는 고령화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 든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문제 상황이 도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년이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2013년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를 분석한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67건의 사건·사고 중 79.7%가 자살과 살인(미수 포함)으로, 그 당사자의 33.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렇게 생계형 사건·사고에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의료비 부담과 가족들의 수발부담 및 간병이 사고로 이어지는 주 위험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2010년)과 노인자살률(2011년)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건강악화는 의료비라는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은퇴를 비롯한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해 주어진 긴 여가시간은 무료함과 고독감의 나락으로 노인들을 이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향해가는 오늘날 노년의 시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 즉 제2의 인생이다. 제1인생이 성공이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린 시기였다면 제2의 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한 가지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지루함과 외로움을 해소하여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 교육은 단순한 지식습득이나 배움의 즐거움을 넘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간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노인 자원봉사 교육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들을 보다 더 활발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료상담, 취업상담, 여가문화 등의 영역에서 노인이 노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개발하여 수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이 지닌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분야의 개발과 그와 관련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 크게 유용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높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은 노인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조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적 고령화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끔 하는 사회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1년 시니어클럽 활동과 2004년 참여정부의 1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정착되어 왔으며,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서비스전달 인력과 활용 가능한 지역 사회 자원의 부족, 취약한 일자리사업 인프라 등으로 인해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가령 핀란드는 1998년부터 노인들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귀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고용센터에서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줘 1998년에 36%였던 만 5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률을 58%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후에도 본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용보장을 해나가게끔 하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교육과 일자리사업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시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만으로는 절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만 갖고 노인복지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시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인생은 없다. 하지만 주저앉기엔 다시 찾아온 제2의 인생은 너무나 길어졌다. 제2의 인생에서는 노인이 당당하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인 스스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문제 해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토론자는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은 김주섭 선임연구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노인일자리사업, 현재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테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조직의 성격이 각기 다른 기관들이 제각각 노인일자리 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수행기관들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각각 실적 위주의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 수행기관별 전문적이고 통합

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노인일자리 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 및 주요 업무 등이 운영지침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업 수행기관별 업무의 유형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사업 수행기관별 업무 유형의 차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은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있기는 하나, 보수가 적어 이직이 심하고, 계약직 신분이라는 핸디캡을 지니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 상 순환보직을 맡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된 기본 지식,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 노인의 특성 이해, 구인처의 확보, 산업체와의 연결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의 개념이므로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요한 노인일자리 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기관들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중에서 기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일자리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나 보다 더 상호 소통되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 체제에 따라 포털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 없이는 효율적인 노인인력 활용이 어렵고 더욱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정부분 지방에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관련 정보 구축, 취업대상자 및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일자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 관련 각종 사업추진 시 필요 인력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분야 시장형 일자리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사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시장 중심적 사고와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수단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기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다시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보람 있게 사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러한 노인들을 바라보는 후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기여, 그리고 봉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 후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노후생계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이 되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향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록 수익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욕구를 부분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보충적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노인들이 행복해질 때, 장년과 청년, 아동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 론 문

정 양 범 부장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 생)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100세 시대로 은퇴 후에도 많게는 4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이에 은퇴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이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다 합쳐도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에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생계유지에 대한 해답을 자영업에서 찾는다. 진입 장벽이 낮고 전문기술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기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창업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 데다 베이비부머들의 신규 창업으로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은퇴자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것에 있다. 물론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은퇴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은퇴자들의 생계유지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는 별개로 은퇴자들을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를 위해 여러 정책 및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이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처럼 은퇴(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사업들이 빛을 못보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계속되면 장년층 미취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전에 은퇴자를 위한 사업 홍보에 힘을 써 은퇴자들이 다시 취업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크게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자영업 종사자, 은퇴(예정)자 전체,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의 정년 연장이다. 물론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과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불가피하게 정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등 여러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 비용 증가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이웃나라 ‘일본’의 정책 변화를 배워야 한다.

일본은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경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47~49년생)의 대거 은퇴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먼저 겪었다. 이에 일본은 1998년 정년을 60살로 연장했으며, 2006년부터는 정년을 65살로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2013년까지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 폐지’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해 65살까지 고용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했다.

후생노동성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정년 65세를 실시하는 기업은 97.3%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년 제도를 폐지한 기업은 2.6%, 정년 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14.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80.3%였다. 대부분의 일본기업이 ‘정년 연장’ 과 ‘정년 폐지’ 보다는 ‘계속고용제도’ 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계속고용제도가 다른 고용 연장 수단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이나 ‘정년 폐지’ 는 60살 이후에도 퇴직 없이 고용 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우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계속고용은 60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우선 퇴직시킨 뒤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고용된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61살 이상 계속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정년 직전의 50~70% 수준이다. 정년을 65세로 하되 60세 이상의 고용자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사회적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 워낙 고령화가 빨리 진행 중인 일본은 고용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이 잘 정비되어왔다. 물론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다시 재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고 해도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인건비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들은 계속고용자의 임금 등 처우 하향 조정, 퇴직금·기업연금 재조정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와 비슷하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의무화가 적용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한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임금커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직무체계 개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지속적인 은퇴가 시작되면 임금피크제는 물론이고 연공급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사회적 변화를 대비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이외에도 장년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에는 유연근무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장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남는 시간에는 은퇴 후의 삶을 계획·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은퇴예정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생계유지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12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준비지원센터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역본부 107곳에 설치된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후 준비를 돕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및 기업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유연근무제와 잘 연관시켜 은퇴설계를 돕는다면 은퇴자들에게는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말한 임금피크제나 유연근무제 등은 모두 정년이 보장되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국한된 논의이다. 정작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빚더미 자영업자’, ‘벼랑 끝 자영업자’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발표자의 말처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을 하기 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용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기반을 다진 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년취업인턴제,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충분한 홍보’이다. 중장년들이 NCS를 활용해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강연 등을 구성하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생계유지를 걱정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은퇴(예정)자, 자영업 종사자 모두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발표자님의 말씀처럼 중고령 취업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차원의 은퇴관련 및 중고령 취업지원사업 담당부서는 너무 산재되어있다. 그러다보니 은퇴(예정)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 대한민국 은퇴처’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통합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여러 사업 간의 연계,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의 역할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법제도 및 지원제도 등이 구축되어 은퇴(예정)자를 위한 기술, 직무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컨트롤타워 이외에도 중장년층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공헌(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재능기부는 잘 활용하면 소외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개인이 사회공헌(재능기부)를 하려면 주로 복지관, 지역주민센터 등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직무전환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그래야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직무전환 준비기간이 충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직무전환과 더불어 생애설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 3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은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설계’가 아닌 ‘생애설계’ 교육을 실시해 생애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생애설계란 청·장년기의 경력개발과 사회적 관계형성부터 은퇴 이후의 수준 높은 생활을 위한 가족 관계와 각종 제도 등 전 세대에 걸친 재무적, 비재무적 인생 설계 과정이다. 생애설계 교육에는 건강설계, 노후사회보장제도, 자원봉사, 커리어관리 및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생애설계 교육을 위해 12월에 출범 예정인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수정해야 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가 1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그 이외 세대를 통합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식개선, 준비, 지원제도가 이루어져야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인의 노력, 노사정간의 합의, 정년 연장이나 유연근무제, 정부의 통합지원 등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작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유명무실이다. 현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위해 NCS가 도입된 상황이지만 이는 노인에게 적용되기 힘들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직무표준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직무표준을 만든 다음 정부, 기업 또는 개인이 회사를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취약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평균 수명은 100세 시대이다. 따라서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합의 및 노력, 국가의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나라이든지 취업을 하면 은퇴를 하기 마련이다. 은퇴를 하고 난 후 국가와 민간기관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책임을 저줄 수는 없다. 결국 노력해야 하는 건 재취업을 원하는 본인이다. 그러므로 중장년층 스스로도 은퇴설계가 포함된 생애설계, 역량강화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토 론 문

이 수 민 본부장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1. 왜 지금! 베이비부머인가?

가. 베이비부머에 대한 따뜻한 이해

- 1)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지금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정체성 혼란
- 2) “낀 세대”
 - 가) 대부분이 배우자의 부모포함, 1명 이상의 부모 부양
 - 나) 대부분이 미혼의 자녀를 두고 있음
- 3) “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 불편한 동거

나. 종합적이고 적절한 제언들

- 1) 베이비부머, 중·고령자, 장년층이 유사한 의미의 인구집단으로 사용
- 2) 이들 집단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3)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과거 10년 동안의 논문 21편 분석 결과
 - 가) 개별기업 차원의 전략
 - (1) 직무재설계 필요
 - (2) 임금 자체의 연공성 완화 조치 수반
 - (3) 고령자 문제에 대한 노조의 협력
 - 나)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 (1) 적합한 직무개발 제시
 - (2) 근로자의 선택, 기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 (3) 직종·직무별 표준임금 제시 등 기준 마련
 - 다) 정부의 재정적 간접지원
 - (1) 시행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2) 중·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등
 - 라) 법규를 통한 직접규율
 - (1) 임금피크제와 연금 수령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대응
 - (2) 중·고령자의 고용유연성 확보 등
- 4) 종합적이고 적절한 제언이라는 큰 의미에 공감
 - 가) 청년고용 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더해
 - 나) 생애주기 전반을 논의

2. 세대별, 성별, 계층별 통합적 접근

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 1) 일자리 문제를 거론할 때 청년 세대,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문제 해결 방안들이 세대, 성, 계층의 개별적 차원에서 논의됨
- 2)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들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가)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 나) 일과 생활 연계, 모성보호 등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 등
- 3) 경제성장률,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움
 - 가)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로 완전 고용에 가까웠던 과거는 물론 최근 4%대의 경제성장으로도 어느 정도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소화할 수 있었으나 장래 1% 미만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총량 증가는 어려울 것
- 4) 각 계층 간 개별적 논의와 대책 마련은 또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
 - 가) 단순한 고용연장형 제도는 청년층의 채용과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세대갈등 초래
- 5)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노동력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
 - 가)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 나)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공급기반 확대

나. 일자리 창출, 양과 질의 균형

- 1) 외환위기는 “일자리”에 대한 의식전환 계기
 - 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생직장”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는 “대마불사”에 대한 인식이 약화됨
 - 나) 기업의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비용절감에 의한 내실이라 판단하고 아웃소싱·사내하청, 인력의 구조조정 단행
 - 다) 이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 2)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 3) “구직난” 못지않게 아직도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 청년층은 기피하고, 중·고령자의 몫이 되고 있어 고용의 질 악화
 - 가) 2011년 대비 2012년 고용동향을 보면, 50대 미만에서는 감소를 보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고용률 증가
- 4) 정권교체 후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 목표, 고용률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왔으나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 가)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킴
 - 나) 새로운 일자리 유형 발굴·지원이 필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서비스업 등)

다. 보다 유연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1)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중·고령층과 청년층 일자리 사이의 유·불리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는 없음
 - 가) 중·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대체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효과가 큰 것으로 실증됨
 - 나) 건설업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중·고령층이 대거 잔류하더라도 청년층 채용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아 정년연장 시행으로 신규인력 채용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 직종에 따라 적용과 이행의 유연성이 필요
- 2)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감액률, 고용연장기간, 대상자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취약하거나 일률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연장토록 한 현행 체계로

는 중소기업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3)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 노동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행되어, 근로자는 고용기회를 보장받고 기업은 같은 노동력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룸
- 4) 한국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달 직원이 일률적으로 직무전환 되어 기업의 기대와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인건비 낭비가 우려되고 근로자는 만족도와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재능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직종·기업·개인 간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형태의 도입과 시행이 바람직

3. 베이비부머, 내일은?

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한 내일

- 1) 노후 소득보장 대책 중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베이비부머에게는 어떨까?
 - 가) 베이비부머 738만 명중 66% 정도인 48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 (2015년 8월)
 - 나) 전체 평균가입기간은 112개월(2014년 12월)로, 남성은 151개월, 여성은 64개월에 불과
 - 다) 소득대체율 까지 하락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불투명
 - (1) 여성은 가입기간이 턱없이 짧음
 - (2) 남성은 50%가 지역가입자(자영업자)로 향후 가입이력 불안정
- 2) 베이비부머의 실제 퇴직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 크레바스 위험
 - 가) 베이비부머 세대 중 127천 명이 이미 생활고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 신청
- 3) 연금개혁(1차, 1997년)시 베이비부머 직전 연령인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1세씩 늦춰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크레바스가 더 깊어짐
 - 가) 정년과 연금수급연령도 연계되지 않음
- 4)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는 현재의 생계보다 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더 큼
 - 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임금하락,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의 하락 등으로 생애 평균소득이 낮아지며 연금하락, 어떤 형태 등 일자리 유지로 인한 가입기간 연장은 연금액 하락 요인을 상쇄할 수 있음

나. 일과 은퇴를 바라보는 베이비부머의 긍정적 시선

- 1) 베이비부머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매우 긍정적
 - 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2013, 박태정)
 - (1)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호구지책의 수단이 아닌 보람 있는 내 일을 찾고 있고
 - (2) 은퇴에 대한 경험적 의미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내 삶의 연속이라 느끼고 있음
- 2) 이제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달라져야 할 때
 - 가)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반영한 세대별 고용시장 운용전략 수립이 필요
 - 나)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경제조직에 접목시키는 등 사회적 역할로 정체성을 찾도록 할 때

토 론 문

김 동 준 센터장

(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I. 발제문에 대한 의견

- ☐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 쇠퇴가 향후 국가성장을 감소 및 베이비부머 세대 빈곤층 확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
- ☐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이를 대비하는 제도적 준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시급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 ☐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재취업지원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II. 보충의견

1. 중장년 재취업시장의 수요공급 현황

- ☐ 재취업시장 중장년 구직자 공급과다

○ 최근 1년간 중장년 실업자 124.4% 증가

- 2015년 2분기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는 총 41만 3천명으로 2014년 3분기 33만 2천명에 비해 24.4% 크게 증가

< 최근 1년간 중장년 실업자 현황 > (단위: 천명)

구분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40~49세	145	146	164	168
50~59세	129	136	157	160
60세이상	58	58	139	85
합 계	332	340	460	413

*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더욱이 실업자의 99.6%는 경력자(취업유경험자)가 차지, 중장년의 경력 재활용률이 극히 낮아 이들의 경제성장 DNA가 사회적으로 소실될 위기에 처함

< 중장년 실업자 경력현황 > (단위: 천명)

구분	중장년 실업자			
	경력無		경력有	
	실업자수	비율(%)	실업자수	비율(%)
40~49세	1	0.2%	159	41.4%
50~59세	1	0.2%	145	37.8%
60세이상	0	0%	78	20.4%
합 계	2	0.4%	382	99.6%

*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분기)

- ☐ 반면 중장년을 채용하는 일자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

-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음
- 공공/민간 채용포털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분석하면 전체 채용 중 중장년은 1~4% 수준

< 채용포털사이트 채용광고 분석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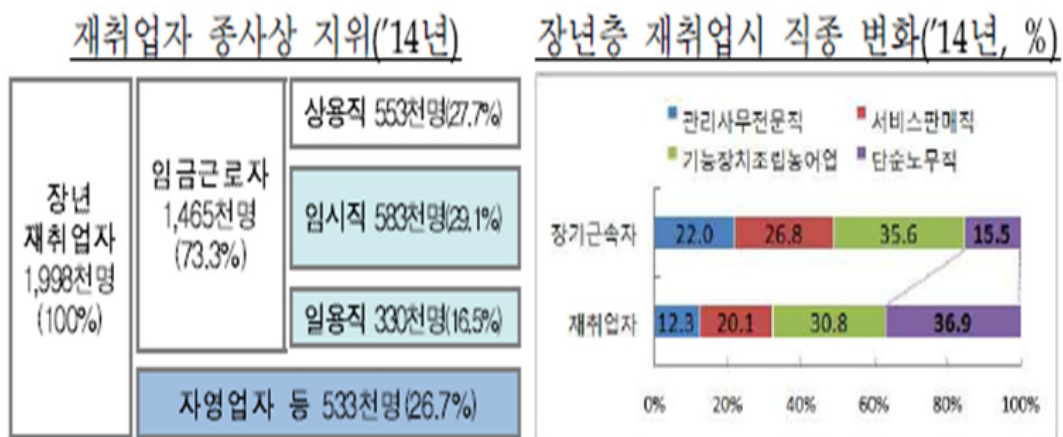
구분	공공채용포털(워크넷)		민간채용포털(사람인)	
	채용(건)	비율(%)	채용(건)	비율(%)
전체 채용	193,634	100%	39,413	100%
10년이상	1,719	0.88%	1,537	3.89%
20년이상	61	0.0003%	103	2.61%
중장년 경력직 채용	1,780	0.92%	1,640	4.16%

* 자료출처 : 워크넷, 사람인 (2015년 10월 8일)

- 중장년 재취업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

2. 중장년 재취업자 고용의 질 악화

-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의 일자리 3多현상 뚜렷
 -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 중 임시직(29.1%), 일용직(16.5%) 취업자 비율이 높아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 생계형 자영업자(26.7%)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재취업 성공자의 단순노무직 비율(36.9%)이 높아서 고용의 질 또한 떨어짐



* 자료: 통계청, 경찰 고령층 부가조사('14년) * 자료: 고용부, 장년층 근로·구직실태조사('14.7월)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종합대책 (2015년 9월)

3. 열악한 중장년 고용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최근 사회적 관심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

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사항

II. 추가제언

1. 중장년 재취업지원 인프라의 확충 필요

☐ 국내 중장년 재취업기관 현황

- 국내 중장년 재취업지원 전문기관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전국 28개소 운영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회원은 총 16만 3천 명으로 1개소 평균 5,800명을 관리하고 있음
-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구직회원은 1만명에 이르는데 비해 내부인력은 6명에 불과하여, 컨설턴트 1인당 1,666명의 구직자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구직자 중심의 1대1 맞춤형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

☐ 일본의 중장년 재취업기관 인프라 비교

- 일본의 경우 장년층(55~64세) 고용률은 66.9%(13년 기준)으로 OECD국가 장년층 고용률 평균(54.9%, 13년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
※ 2013년 우리나라 장년 고용률은 64.3%
-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문제를 겪은 일본은 이미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종합지침을 세움
- 일본의 최대 고령자 취업지원시설은 실버인재센터로 전국 1,300소 운영
- 전체 72만 9천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 당 평균 관리인원은 560명 수준

< 중장년 재취업지원 인프라 비교 >

구 분	기관(수)	서비스 가입회원(명)	기관 1개소 관리회원(명)
한 국 (A)	28	163,484	5,838
일 본 (B)	1,300	729,209	560
비 교 (A/B)	2.1%	22.4%	10.4배

2. 전직지원의무화법의 시급한 입법

☐ 재직 중 퇴직준비가 어려운 기업문화

- 중장년 퇴직자 3명 중 1명만이 재취업준비
 - 2015년 5월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32명을 대상으로 퇴직이전 재취업 준비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3.4%(344명)만이 '준비했다'고 응답

- 고용노동부는 사전준비 없이 발생하는 돌발퇴직을 방지하고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함
 - 관련 법안은 2012년부터 국회 계류 중으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국내 기업의 인사관리는 재직자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의 전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관련 법안의 입법추진이 시급함
 - 기업 또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의 차원에서 정부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음

부 록

-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토론회 관련기사
- 공지사항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강옥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자:

-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 론 자: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2) 장항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3) 이에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울지대 교수)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뒀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 론 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3 .곽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홍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 론 자:

1.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조선일보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 론 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사회: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사회: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8차> 2011. 12. 20 본 연구회 창립 2주년 기념 제 8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 1)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2)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3) 박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 4)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 5)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 'Memory'(추억) , <캣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중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페이지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 론 자 :

- 1)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군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1) 박병현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태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1 : 박미숙 (천안시 여성가족과장)

2 : 김태희 (백석문화대 교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 이명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 이은하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장)

축 사: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 구종희(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 권오영(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변호사)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축 사: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 최진봉(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 유근형기사(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박범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고수선 연구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 김은주 소장(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토론회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9차>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 론 자:

1)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자치부

협 찬: 국민연금공단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토론회 및 본 연구회 관련 기사>



내외신문 15-09-16 02:19 | 최종업데이트 15-09-16 07:3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박람회’에 참가

[서울=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사회복지 시책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해 보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

성남시는 15일 오전9시 시청 광장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등 성남시내 각종 사회복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 관심 확산과 지역 현장에서 애쓰는 이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렸다.

시청 광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유공자 25명이 표창을 받았다.

표창 받은 이들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여러 해 동안 한결같이 사회복지를 실천한 사회복지인들이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인 대표로 이은섭.노현정 사회복지사가 나와 “복지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낭독하였다.

시청 광장에는 ‘대한민국 복지중심 성남, 함께 나누는 행복사회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시민 체험부스 70여개가 설치 운영되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에서도 ‘건강도 복지다, 음식도 복지’라는 주제로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한방치료의 체험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 건강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체험 거리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사랑의 쌀 기부와 나눔.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 위원회(위원장 노만호)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승문)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인은 사회복지사만 1,300여명이며,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면 2,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베이비부머세대 氣살리기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마당 힐링 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활짝

이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9/08 [14:29]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은퇴(퇴직)로 힘들어 하거나 방황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등산을 통해 자연의 기를 받고 자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웃음, 강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 삶의 극복의지를 가지게 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5일 오전 9시 부터 양평 용문산 야외공연장에서 서울 중랑, 은평 수도권 성남, 평택 베이비부머세대들 약 200명이 모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취업 또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기살리기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1부 힐링 등산을 거쳐 실시한 2부 토크 콘서트에는 이정숙 회장의 사회로 김형운(한의사),강미순(수지침전문가), 김선호(베이비부머재기성공명사), 정은상(웃음강사)씨 등이 강사로 나와 베이비부머세대가 평소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웃음의 생활화 중요성에 대해 들려주고 대화를 나누었다.



▲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기살리기 한마당에 함께 한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경



▲ 이날 토크쇼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이에 대한 해결점을 상호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고 참가자들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 이경

김선호 강사는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리스크가 적은 소자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날 토크쇼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이에 대한 해결점을 상호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고 참가자들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79' 강변가요제 출신의 그룹 '건아들' 리더 싱어 박대봉 씨 및 초대가수들이 나와 노래로 분위기를 돋워 박수갈채를 받았다.

3부는 이 날 참석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참여하여 장기자랑을 통해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시에 몽골부스에서는 김형운 한의사와 강미순 수지침 선생님의 진료 체험도 이루어졌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간 115조원의 예산이 복지부문에 사용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복지가 아직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 여기 모인 베이비부머 회원들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 문제점을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 실현이 앞당겨 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베이비부머세대가 한창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은퇴와 퇴직으로 힘들어 하거나 꿈을 잃지 않고 다시 氣”를 받아서 심기일전하여 인생 이모작을 다시 재설계하기 바라는 염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재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09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대안제시를 해왔다.

이 날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氣살리기 한마당 열려



[서울=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은퇴(퇴직)로 힘들어 하거나 방황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등산을 통해 자연의 기를 받고 자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웃음, 강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

삶의 극복의지를 가지게 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부회장 김문식)에서 5일 오전 9시 부터 양평 용문산 야외 공연장에서 서울 중랑(대표 김문식), 은평, 수도권 성남, 평택 베이비부머세대들 약 200명이 모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취업 또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개최 하였다.

1부 힐링등산을 거쳐 실시한 2부 토크 콘서트에는 이정숙 회장의 사회로 김형운(한의사), 강미순(수지침전문가), 김선호(베이비부머재기성공명사), 정은상(웃음강사)씨 등이 강사로 나왔다.

건강과 웃음은 우울증, 질병을 예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효과도 있어 베이비부머세대가 평소에 어디서나 , 언제든지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웃음의 생활화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소자본 창업에 대한 김선호 강사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 주는 시간이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이들에 대한 해결점을 상호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고 참가자들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인 질문 등으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순서 중간 중간 79' 강변가요제 출신의 그룹 '건아들 리더 싱어 박대봉 씨 및 초대가수들이 나와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3부는 이 날 참석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참여하여 장기자랑을 통해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시에 몽골부스에서는 김형운 한의사와 강미순 수지침 선생님의 진료 체험도 이루어졌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간 115조원의 예산이 복지부문에 사용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 꼭 필요한 때에 복지가 아직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 여기 모인 베이비부머 회원들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 문제점을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 줄 것을 당부 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 실현이 앞당겨 진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베이비부머세대가 한창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은퇴와 퇴직으로 힘들어 하거나 꿈을 잃지 않고 다시 氣”를 받아서 심기일전하여 인생 이모작을 다시 재설계하기 바라는 염원에서 마련하였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재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09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대안제시를 해 왔다.

이 날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 졌다.

사)선진복지사회학회, ‘베이비부머세대 feel 한마당’ 개최 2015/09/15 16:46 입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5일 양평 용문산 일대에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서울 중랑구, 은평구, 성남시, 평택시 베이비부머세대 약 200명이 모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취업 또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1부 힐링 등산, 2부 토크콘서트, 3부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9시에 집결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용문산 중턱까지 가벼운 등산을 마친 후, 용문산 야외 콘서트장에서 토크콘서트와 초대가수 공연, 장기자랑 등을 함께 즐겼다.

이정숙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김형운(한의사), 강미순(수지침 전문가), 김선호(베이비부머세대 재기성공 명사), 정은상(웃음강사) 씨가 참여해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과 웃음을 생활화하는 습관, 소자본 창업 체험담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상호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질문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979년 강변가요제 출신 그룹 ‘건아들’의 리더싱어 박대봉 씨 등이 초대가수로 나와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3부에는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시에

체험부스에서는 김형운 한의사와 강미순 수지침 선생님의 진료 체험도 이뤄졌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간 115조원의 예산이 복지부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베이비부머세대 회원들이 각종 현안과 문제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 “빠른 은퇴와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심기일전하여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자”며 의지를 북돋았다.

한편, 지난 2009년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창립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매년 복지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거대 담론부터 현장 속 생활복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뉴스 홈 > 전체기사

베이비부머 노후준비...건강 '양호', 재무 상태는 '열악'

송고시간 | 2015/07/09 17:45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10명 중 2명은 노후준비 '나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50대 베이비부머가 대인관계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제대로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은퇴 후의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 영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으로 전체 인구의 14.5%인 700만명에 이른다. 현재 만 52~60세로,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가 되기까지 5~13년이 남아있다.

정 센터장은 2013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상태를 ▲여가영역 ▲대인관계 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등 4가지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의 노후준비 지수는 대인관계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각각 62.2점과 69.6점을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무 영역의 노후준비 지수는 5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의 25.2%, 여성의 18.2%는 특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노후준비 낙후집단'으로 분류됐다.

정 센터장은 베이비부머 중 저소득층의 재정적인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며 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남성은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불입을 못해 연금 수급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의 경우 공적 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다"며 "이들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3〉 영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수준

(단위: 점)

구분	영역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남성	여가영역	56.6	58.4	57.2	53.2	56.9
	대인관계영역	61.6	61.3	62.8	59.7	61.5
	건강영역	66.8	67.2	67.8	67.6	67.4
	재무영역	50.4	51.4	52.6	51.1	51.6
여성	여가영역	53.3	54.0	52.7	50.5	52.8
	대인관계영역	66.0	63.8	61.5	56.4	62.0
	건강영역	71.9	72.0	71.4	69.5	71.3
	재무영역	52.3	51.2	51.6	46.0	50.5
전체	여가영역	55.0	56.2	55.0	51.8	54.8
	대인관계영역	63.7	62.5	62.2	58.0	61.8
	건강영역	69.3	69.5	69.6	68.6	69.4
	재무영역	51.4	51.3	52.1	48.4	51.1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09 17:45 송고



홈 > 뉴스 > 경제·산업

베이비부머 노후준비...건강 '양호', 재무 '열악'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10명 중 2명은 노후준비 '낙후'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50대 베이비부머가 대인관계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제대로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은퇴 후의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 영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으로 전체 인구의 14.5%인 700만명에 이른다. 현재 만 52~60세로,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가 되기까지 5~13년이 남아있다.

정 센터장은 2013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상태를 ▲ 여가영역 ▲ 대인관계 영역 ▲ 건강영역 ▲ 재무영역 등 4가지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 준비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의 노후준비 지수는 대인관계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각각 62.2점과 69.6점을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무 영역의 노후준비 지수는 5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의 25.2%, 여성의 18.2%는 특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노후준비 낙후집단'으로 분류됐다.

정 센터장은 베이비부머 중 저소득층의 재정적인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며 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남성은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불입을 못해 연금 수급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의 경우 공적 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다"며 "이들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베이비부머 은퇴는 위기이자 기회..노후준비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이 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이날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한정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자처,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김현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숙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베이비부머세대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정책 토론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가 이들 삶에 희망의 실마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경희 박사는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먼저 정경희 박사는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그는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에 있는 세대라

는 점에서 이들의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 시켜야 이후 이들이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들 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베이비부머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그는 “이들이 정보 습득 능력이 높다는 점과 인터넷 사용 능력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곧 노인 세대로 편입될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베이비부머의 경우 ‘샌드위치 세대’로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노후준비를 여가, 대인관계, 건강, 재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노후준비지표에 따르면 50대의 노후 준비정도는 40대와 비슷하지만 재무에대한 준비가 특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후 설계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발표를 통해, ▲필요성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노후준비 설계, ▲노후 준비가 미비한 집단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유형별 맞춤형 정책적 대응,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앞으로의 노후준비 정책과제로 꼽았다.



▲ 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발제문 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자들이 토론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정책과제 및 해결 방안에는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 팀장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안정적 노후준비가 시급하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60세 정년 의무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김현수 박사는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자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의 완화에 대해 “가입자들의 수급권 확보 측면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한다면 오히려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할 경우 “캠브리아기 빅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를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당한다”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고령화사회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연금투자교육 강화, ▲주택연금의 효율적 활용, ▲비재무적 파산 경계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뉴스천지
newscj.com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준비 실태 돌아보다

이혜림 기자 | rim2@newscj.com 2015.07.09 17:07:43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이 축사를 하며,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박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선 김현수(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박사,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 팀장, 김정록(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돼 중상층이 많이 몰락해 우리 주위에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워졌다”며 “이들이 은퇴(퇴직) 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제2인생 설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정경희 박사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실질적인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인 반면 연금수급연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연령은 60대인 등 제도상의 불일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50대 남성 노후준비 적정집단은 11.8%, 노후준비 근접집단은 63.0%이며, 25.2%는 기준선 하위 75%에 속해 있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선진국(독일 5년, 영국, 캐나다, 스위스 1개월 등)에 비해 엄격한 기준인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더욱 완화하여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비부머 안정노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선진복지사회연 세미나 "스스로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기사본문 댓글 바로등록 : 2015-07-09 19:51

현재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팀장은 9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를 위해 중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과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성숙과 더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중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 베이비부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퇴직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일시 수령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필요성이 점차 커져감에도 일시금 수령비율이 95.2%로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해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 연금화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근로자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경제투데이

베이비부머 노후준비...건강 '양호', 재무 상태는 '열악'

기사입력 2015-07-09 18:06

【경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50대 베이비부머가 대인관계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제대로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은퇴 후의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 영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으로 전체 인구의 14.5%인 700만명에 이른다. 현재 만 52~60세로,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가 되기까지 5~13년이 남아있다.

정 센터장은 2013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상태를 ▲여가영역 ▲대인관계 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등 4가지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의 노후준비 지수는 대인관계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각각 62.2점과 69.6점을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무 영역의 노후준비 지수는 5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의 25.2%, 여성의 18.2%는 특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노후준비 낙후집단'으로 분류됐다.

정 센터장은 베이비부머 중 저소득층의 재정적인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며 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남성은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불입을 못해 연금 수급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의 경우 공적 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다"며 "이들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 hschae@



홈 > 핫이슈

베이비부머 노후준비...건강 '양호', 재무 상태는 '열악'

서한솔 기자 | rachelnews@ccdailynews.com

50대 베이비부머가 대인관계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제대로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은퇴 후의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 영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으로 전체 인구의 14.5%인 700만명에 이른다. 현재 만 52~60세로,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가 되기까지 5~13년이 남아있다.

정 센터장은 2013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상태를 ▲여가영역 ▲대인관계 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등 4가지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의 노후준비 지수는 대인관계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각각 62.2점과 69.6점을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무 영역의 노후준비 지수는 5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의 25.2%, 여성의 18.2%는 특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노후준비 낙후집단'으로 분류됐다.

정 센터장은 베이비부머 중 저소득층의 재정적인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며 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남성은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불입을 못해 연금 수급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의 경우 공적 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다"며 "이들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머니&이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재무 상태 '열악'

50대 베이비부머가 대인관계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 센터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가 속해있는 50대의 노후 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 영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50대의 노후준비 지수는 대인관계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각각 62.2점과 69.6점을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무 영역의 노후준비 지수는 5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남성의 25.2%, 여성의 18.2%는 특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노후준비 낙후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은퇴 후의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 '베이비부머세대 노후...' 토론회 개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제19차 토론회가 7월 9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경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특별히 열아홉 번째 토론회를 위해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아주대 명예교수)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본 연구회 고문)이 축사를 한다.

이정숙 회장은 “720만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세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은퇴(퇴직) 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제2인생 설계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20차 토론회는 오는 10월에 이어진다.

한편, 이들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행사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www.sswkorea.org, 070-8793-520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雨데일리안
YOU IS THE NEWS

"통일 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

지난달 26일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 주제로 토론회 열려
최균 교수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 지난 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2월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여가 흘렀다"며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공공부조 등 통일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를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국가의 지불능력 부족이 국가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체계의 배급제도와 무상의료가 붕괴해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통일 후 인구이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 체계의 호혜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회복지재정과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은 통일 준비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소장은 여성의 무관심은 여성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통합방안은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감정 분리 운영을 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감정적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 박사는 북한이 붕괴시 대량 이민과 관련하여 정치적 통합이전에 북한의 응급 거버넌스와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고, 남한은약품, 전기 등 물자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윤정선 기자]



"남북한 사회보장체계통합방안 논의 시작해야"

【서울=뉴스시스】 박대로 기자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사회보장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27일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공공부조 등 통일비용의 절반이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며 "통일 후 인구가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 체계의 호혜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의 사회복지재정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실성을 기반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잠정 분리 운영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를 고려해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박사는 또 "북한 붕괴 시 대량 이민과 관련해 정치적 통합 이전에 북한의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남한은약품·전기 등 물자지원을 통해 1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

“통일 대비 사회보장 체계 통합방안 시급”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이정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70주년인 올해, 독일의 예를 본받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균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 다양한 문제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 교수는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기본적인 배급제도와 의료체계가 붕괴돼 있다”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사회복지재정 및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균 교수는,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은 통일 준비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주 소장은 통일에 대한 여성의 무관심을 우려하면서,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은 현실을 고려해, 잠정적으로는 분리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근춘 박사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긴급구호단계에서 북한의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고, 한국은약품, 전기 등 물자적 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천지
newsj.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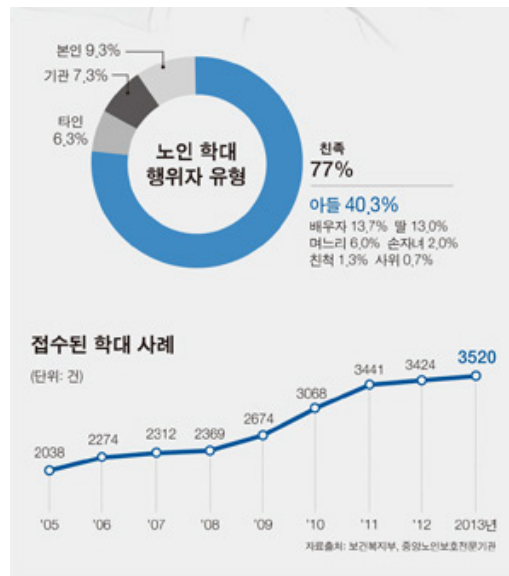
뉴스 > 사회 > 노동·인권·복지

‘孝’는 어디에... 학대에 멍드는 노인들 “그래도 내 자식”

이혜림 기자 | rim2@newscj.com 2015.05.18 08:57:06

신고건수 8년새 3배 급증
학대 행위자, 아들이 40%
부양부담이 학대로 이어져

학대 처벌, 3년간 4건 뿐
대상자 과반이 저소득 이하



“가정사 NO, 반드시 신고”

[천지일보=이혜림, 김민아 기자] #1. 이만재(가명, 77)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임·유기됐다. 이 할아버지는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경증 치매로 타인의 말을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 했다. 발견 당시 이 할아버지는 긴 백발머리가 엉켜져 있었고, 옷도 해지고 더러운 이물질로 오염된 상태였다. 이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오래된 음식과 쓰레기, 벌레로 뒤덮여 있었다. 첫째 아들은 이 할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월세집을 구했지만, 이 할아버지를 홀로 두고 부양책임을 회피했으며 월세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2. 김순희(가명, 67)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이 강한 아들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5년 이상 받았다. 김 할머니는 7~8년 전부터 성당에 다니고 있었으나 아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종교 활동에 대한 마찰이 있었다. 아들은 성경책을 불태우며 “엄마도 물어야겠다” “천국으로 보내줄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보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깨진 성모마리아 상의 조각을 김 할머니의 손목에 찌르려고도 했다. 김 할머니가 아들의 폭력을 피해 이웃집으로 도망이라도 가면, 아들은 이웃집 유리를 부수는 등 막무가내였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지만 자식들의 학대와 구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효 문화를 근간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를 지키는 동방예의지국의 면모가 대한민국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학대 문제

는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다.

◆끊이지 않는 학대... 주범은 ‘아들’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노인 학대 문제 인식 개선으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연도별 노인 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3년 전체신고건수는 193.8%(3549건→1만 162건)로 급증했으며, 학대사례도 2038건에서 3520건으로 72.2% 늘었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자녀 또는 친족이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4013명 중 40.3% 해당하는 1619명은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딸’도 13.0%(519건)을 차지했다. 이들 자녀와 더불어 배우자, 며느리 등 ‘친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 학대사례의 77.0%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년 지속돼 온 현상으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의 부양의무가 아들에게 부여되고 이에 대한 아들의 부양부담이 노인 학대를 야기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러다보니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도 가정이 83.1%(292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발견이 어려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기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노인 공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며 “요즘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경제적 요인이 크다. 자녀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니 부양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도 내 자식”... 전과자 만들 순 없어

노인 학대 가해자의 80%가 가족 등 친족이다 보니 행위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노인 학대로 처벌받은 건수는 3년간(2011~2013년) 4건에 불과했다.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다도 학대 피해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전체 학대사례의 23.0%(824건)에 불과했다. 사람답지 않은 자식이라도 처벌받을까 걱정이 앞서는 탓이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노인 학대 사례는 자기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부모의 걱정 때문에 노인 학대가 끊아 터져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렵다”며 사례 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반 이상, 경제적 어려움 겪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폭력에서 벗어나기가 쉬웠지만 학대 피해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연금 혜택은 아직 미미하고, 나이가 들어 돈 벌기는 어렵다. 201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노인의 생활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하가 67.3%(2367명)으로 학대 노인의 과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부모 및 자녀간의 부양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이에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대 피해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인식 개선 필요... ‘이웃’ 함께 풀어가야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나이가 들면 신체적 차이가 급격히 드러난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단기 기억을 잘 못하거나 반복해서 물어보는 등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 귀찮게 여기게 되고 정서적 학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학대가 신체적·경제적 학대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 요즘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윤리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부모에 대한 효 사상도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노인 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다. 이웃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1577-1389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일보 www.jnilbo.com

화순군은 21일 '제2의 인생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화순군에 따르면 (사)귀농귀촌정보센터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화순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귀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은 제2의 인생 설계를 화순에서 농업·농촌 공동체와 함께 꾸리게 된다. 이날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50여 명은 농업기술센터와 잠정햇살마을 등을 현장 견학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화순군, 도농교류 업무협약 체결..귀농 정착 도움

귀농귀촌정보센터, 선진복지사연구회와 귀농 정보 등 교류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09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조진현 기자)

20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화순군청)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제2의 인생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는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 귀농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동 관심사인 제2의 인생 설계를 화순서 농업·농촌 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50여명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잠정햇살마을, 춘양 작두콩 농가, 동북 향원 발효식초, 동북 유천리 생태마을, 마중물을 현장 견학했다”며 “앞으로도 화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일보=호남]화순/김영인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제2의 인생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는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 귀농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동 관심사인 제2의 인생 설계를 화순에서 농업·농촌 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50여명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잠정햇살마을, 춘양 작두콩 농가, 동북 향원 발효식초, 동북 유천리 생태마을, 마중물을 현장 견학했다”며 “앞으로도 화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 전국 > 광주/전라

[화순] 화순군, 도농교류 업무협약 체결

이진욱 기자 | rytn3295@naver.com 2015.05.20 18:07:51

▲ 20일 전승규 귀농·귀촌정보센터 대표(왼쪽)가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화순군청)

귀농·귀촌정보센터,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귀농 정보 등 교류



[천지일보 화순=이진옥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 도농 교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화순군은 '제2의 인생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운데 도농교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화순군은 귀농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귀농 희망자 모집 및 농산물 물품 구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50여명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잠정햇살마을, 춘양 작두콩 농가, 동북 향원 발효식초, 동북 유천리 생태 마을 등을 현장 견학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화순에서 농업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Program

- 일 시 : 2015년 8월 29일(토) ~ 30일(일)
- 장 소 : 순천만 정원, 보성 녹차밭, 담양 소쇄원
-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참여대상 : 청소년, 베이비부머세대 각 20명

29일

07:00 성남시청 출발	08:30 조식 휴게소	11:30 담양 소쇄원 도착	11:30~14:00 점심 및 관람	14:30 보성대항다원 도착	16:30 보성 다원사원도 도착 및 식사 및 방제지	17:00~23:00 함께 놀이함~	23:00 취침
---------------------	--------------------	-----------------------	---------------------------	-----------------------	---------------------------------------	---------------------------	-------------

30일

07:00~08:00 조식 출발	09:00 순천만 정원	12:00~13:00 점심	13:00~17:00 순천만 갈대밭	17:00 서울 출발	18:30 석식 휴게소	22:00 성남시청 도착
-------------------------	--------------------	-------------------	---------------------------	-------------------	--------------------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혁

2009. 10. 15 창립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7. 1 기재부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10. 22 토론회 개최, 2015. 2. 26 토론회개최자-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5. 4. 1 [시나리오프로젝트]기자격증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2015. 4. 6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2015. 4. 28 2015 IBC기업문화 후원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2015. 11. 7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과정 6기 개강 예정 (주말 연속 4주)
※수료식 [시나리오프로젝트]기자격증 발급

본 연구회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가족을 찾습니다

후 원 계 좌 1005-702-640482 우리은행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사 무 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0번길2 성지하이츠빌 1119호
서울사무소 (152-842)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빌 1808호
TEL 070.8793.5202 FAX 031.707.5042 E-MAIL 2silent@hanmail.net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

영정자치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세번째 마당>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2일 공감여행

첫번째 마당
월링 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Feel 살리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 일시 : 8월 29일 (토) · 1부 : 월링 등산 · 2부 : 장기자랑 및 체험행사
· 장소 : 양평 월링산 · 2부 : T&A 콘서트

두번째 마당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준비 현안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층 기자회견장 · 참여처 : 언론
· 일시 : 8월 30일 (일) 오후 2시 · 참여대상 : 베이비부머세대 및 누구나

세번째 마당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2일 공감여행
· 일시 : 순천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2015년 2차 지원
· 일시 : 8월 29일~30일, 7시 출발
· 참여대상 : 청소년, 베이비부머세대 각 20명 선정

네번째 마당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현안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층 기자회견장 · 참여처 : 언론
· 일시 : 8월 29일 (일) 오후 2시 · 참여대상 : 베이비부머세대 및 누구나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꿈과 행복을 부탁해~!

1박2일동안 저 머릿속에 놓을것을 편 좋겠다.

저는 순천에 가서 순천대항다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별장차와도 가고 싶습니다. 강변도 가고 해 보고 싶고 순천만 창밖에도 먹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화장대 옆에 서서 고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난상가리도 숙지도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먹는 야식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순천에 가서 순천대항다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별장차와도 가고 싶습니다. 강변도 가고 해 보고 싶고 순천만 창밖에도 먹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화장대 옆에 서서 고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난상가리도 숙지도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먹는 야식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순천에 가서 순천대항다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별장차와도 가고 싶습니다. 강변도 가고 해 보고 싶고 순천만 창밖에도 먹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화장대 옆에 서서 고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난상가리도 숙지도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먹는 야식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순천에 가서 순천대항다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별장차와도 가고 싶습니다. 강변도 가고 해 보고 싶고 순천만 창밖에도 먹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화장대 옆에 서서 고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난상가리도 숙지도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먹는 야식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순천에 가서 순천대항다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별장차와도 가고 싶습니다. 강변도 가고 해 보고 싶고 순천만 창밖에도 먹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화장대 옆에 서서 고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난상가리도 숙지도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먹는 야식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순천에 가서 순천대항다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별장차와도 가고 싶습니다. 강변도 가고 해 보고 싶고 순천만 창밖에도 먹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화장대 옆에 서서 고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난상가리도 숙지도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먹는 야식도 먹고 싶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

첫번째 마당

힐링 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Feel 살리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6월 13일(토)

두번째 · 네번째 마당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현안과 과제 토론회
7월 9일(목), 10월 21일(수)

세번째 마당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2일 공감여행 8월 29일~30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두번째
네번째
마당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현안과 과제 토론회

- 장 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 일 시 7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6시, 10월 중순
- 참 석 비 없음
- 참석대상 베이비부머세대 및 누구나

▶ 행사취지

- 720만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퇴직) 후 불안한 일자리 및 노후 대책을 마련을 위한
-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 생활고를 비관해 급격히 늘어나는 50대 자살률의 원인과 대책 방안
-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제공
- 간세대 샌드위치 세대인 이들이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와의 소통과 적절한 역할 부담으로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세번째
마당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2일 공감여행

- 장 소 순천만,보성녹차,담양소쇄원,고흥군 다도해
- 일 시 8월 29(토)~30(일), 7시 출발
- 참석대상 청소년, 베이비부머세대 각 20명 멘토링

▶ 행사취지

- 그룹을 청소년들에게 멘토 또는 부모 되어 주기
- 역사적 의미 및 힐링이 가능한 곳의 여행을 하며 베이비부머세대의 경험과 지식 등을 나누며 추억하기
- 세대간 소통 및 공감을 이루고 베이비부머세대인 자기 존재감 재확인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됨
- 그룹을 청소년들이 어른 부모에 대한 거부와 부정적인 생각을 덜게 함
- 멘토로 참가하는 베이비부머는 자기 존재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재인식하게 함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혁

- 2008. 10. 15 창립
-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7. 1 기부자명장기부단체 등록
- 2014. 10. 22 토론회 개최, 2015.2. 26 토론회개최-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5. 4. 1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 2015. 4. 6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 2015. 4. 28 2015 BK7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시민사업 선정
- 2013. 4. ~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과정 5기 진행중
- 2015. 7. ※수료시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발급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냅니다.

· 본 연구회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가족을 찾습니다 ·

후 원 계 좌 1005-702-640482 우리은행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사 무 스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0번길2 성지하이츠빌 1119호
서울사무소 (152-842)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천경오피스빌 1808호

TEL 070.8793.5202 FAX 031.707.5042
E-MAIL 2silent@hanmail.net

협력단체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사)여성자원금고,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첫번째
마당

힐링 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Feel 살리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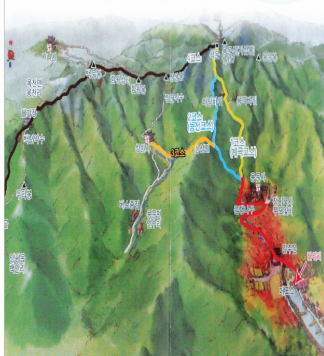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부 : 힐링 등산

용문산 등산 안내도



2부 : Talk 콘서트

▶ 초대가수

건아들 박대룡 (79 제1회 mbc강변가요제 등상)
박희진
조이

▶ 출연진

김형운(한의사)
강미순(수지침)
김선희(베이비부머자기성공명사)
정은생(웃음강사)



사회 : 박미출, 이정숙

3부 : 장기자랑 및 체험부스

▶ 한의/수지침 체험 몽골텐트 운영



한의/수지침 체험을 원하는 분은 희망 항목과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접수 ▶ 010-8247-2652 (세희 희망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09:30 양평 용문산 도착
09:30 ~ 12:30 산행 준비제출, 땀방기 산행
12:30 ~ 13:00 하산 및 꿀맛 점심 남남남!!!



13:00 ~ 13:30 장내식리 및 초대가수 노래
13:30 ~ 15:00 ♥건강식요법 및 건강관리 한의사
♥웃음은 건강이다, 복지다.
♥수지침으로 간단한
건강예방 및 응급처방
♥베이비부머 생생 소자본
창업성공담
15:00 ~ 15:30 ♥초대가수
♥느린 우체통(나에게 보내는 연발편지)



15:30 ~ 17:30 ♥희망 품선 불기
♥장기자랑
♥한의/수지침 체험
17:30 ~ 17:50 초대가수 및 시상식
18:00 집으로 go!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멘토링 사업목적 및 목표

9988강의

건강9988, 웃음9988, 취미찾기

목적 ▶ 집에서나 야외에서 평생식 스스로 간단한 체조나 수자침, 식이요법하고 웃는 습관을 기르며 멘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주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목표 ▶ 멘티 스스로 작은 질병은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함

힐링여행

목적 ▶ 멘토, 멘티가 여행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고 인격적 신뢰관계를 형성, 공간에 갇혔던 마음을 자연 속에서 해소하고 햇볕과 공기 등 신선한 것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함
 목표 ▶ 자아재발견과 자기 소중함을 깨닫게 함

명사와의 대화

목적 ▶ 동년배의 명사들로부터 조언, 지혜의 전달을의 시간을 가짐
 목표 ▶ 과거보다 여성에 대한 예찬과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목적 ▶ 멘티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멘토에게 함
 목표 ▶ 자기 고백을 통해 스스로 치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함

행복한 멘토 약속

-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른신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겠습니다
-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른신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하겠습니다
-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른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겠습니다
-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른신에게 화를 내거나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 나, 행복한 멘토는 멘토링을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도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 나, 행복한 멘토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킵니다

행복한 멘티 약속

- 나는 멘토자와 함께 하는 시간동안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 나는 멘토자를 딸, 아들처럼 생각하겠습니다
- 나는 멘토자에게 칭찬을 하겠습니다
- 나는 멘토자와의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킵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혁

- 2009. 10. 15 창립
-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7. 1 기재부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10. 22 토론회 개최, 2015.2.26 토론회개최자-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시·내·외·JFE코디네이터]각종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과정 5기 진행중
- 2015. 4. ~
- 2015. 4. 28
- 2013. 4. ~
- 2015. 7. ※수료시 [시·내·외·JFE코디네이터]각종 발급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본 연구회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뜻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시오

후원계좌 1005-702-640482 우리은행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사무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번길2 성하아파트 1119호
 서울사무소 (152-842) 서울 구로구 공평로 3 삼성오피스텔 1808호

TEL 070.8793.5202 FAX 031.707.5042
 E-MAIL. 2silent@hanmail.net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근심은 - (떨고), 기쁨은 + (다하는) 행복한 멘토링!

멘토링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티와 짝을 이루어
 멘티의 정서, 건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조언, 격려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멘티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2015. 5. 27(수) 첫 결연식

- 일시 : 2015. 5. 27(수) 1부 - 오전 12시~12시30분 2부 - 오전 12시30분~1시30분
- 장소 : 정지2동 주민자치센터(1부) 인근 식당(2부)
- 순서
 1. 개회식
 2. 인사말
 3. 시간대별 소개
 4. 멘티와 멘토의 행복약속
 5. 연복 소개
 6. 멘티와 멘토 : 멘토 1명 멘티 2명
 7. 멘토/멘티 행복한 식사 장소와 이동수단 배정(멘토 1명, 멘티 2명)
 8. 폐회

사업 세부 일정 및 내용

- 시간 : 오후 2시~4시
- 장소 : 정지2동 주민자치센터

- 건강 9988
 - 날짜 : 6월 19일 (목)
 - 강사 : 김형운 한의사, 김정민 한의사, 조명숙 교수
- 내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 날짜 : 7월 16일 (목)
 - 강사 : 이한희, 김정민
- 웃음 9988
 - 날짜 : 8월 20일 (목)
 - 강사 : 정문성 한국웃음연구소 웃음코디 조명숙 교수
- 명사와의 대화
 - 날짜 : 9월 18일 (금)
 - 강사 : 오영숙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차장(89세) 윤광남 어르신 가수 (85세)
- 나에게 맞는 취미 찾기
 - 날짜 : 11월 20일 (금)
 - 강사 : 맹현옥 교수, 김혜숙 교수
- 행복 여행
 - 날짜 : 10월 21일 (수)
 - 장소 : 용인 휴양림
 - 시간 : 10시 출발, 4시 도착
- 종료식
 - 날짜 : 11월 29일 (금)
 - 시간 : 12시 반

	멘토	멘티
행 조	김형운 한의사 전문관리원 원장	김병호, 김당두, 김병수
복 조	문승권 다산장장영양관리원 원장	정규수, 이수남, 정영일
한 조	김민정 한의사 전문관리원 부원장	이정순, 김열단, 하연옥
멘 조	이한희 한국중요문화유산위원장	김정자, 김진오, 문일순
토 조	맹현옥 시민사회정책연구소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박정순, 심귀순, 양영주
링 조	김정민 한국중요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오정임, 최길자, 정성남

코디네이터 조명숙 교수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슈퍼바이저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제 2015-001578 호

민 간 자 격 등 록 증

1. 등록자격관리자: 사단법인선진복지사회연구회
2. 사업자등록번호: 144-82-01135
3. 주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2 (서현동) 11층 1119호
4. 대표자
성명: 이정숙 생년월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
5. 자격의 종류 및 등급: 시니어LIFE(라이프)코디네이터, 2급,1급
6.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제출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7. 등록에 따른 이행 조건:
 - 가. 등록된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와 등록번호, 해당 민간자격관리기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나. 등록된 자격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다. 등록된 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격의 명칭, 등급, 직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03월 3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관리번호: 008290

사단법인 자격등록번호
제 2015-001578 호

자 격 증 서

종 목 : 시니어라이프 코디네이터(SENIOR LIFE COORDINATOR)
등 급 : 1 급
성 명 : 이 정 숙
생년월일 :
자격번호 : 15-2101009



위의 사람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본 자격증을 드립니다.

*This is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ordinator course admitted by Seonjin Welfare Society
Association and has passed th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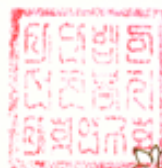
2015년 7월 9일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자격검정운영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15-001578 호

자 격 증 서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종 목 : 시니어라이프 코디네이터(SENIOR LIFE COORDINATOR)
등 급 : 2 급
성 명 : 이 정 숙
생년월일 : [REDACTED] 12
자격번호 : 15-2201009



위의 사람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본 자격증을 드립니다.

*This is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nselor course admitted by Sunjin Welfare Social
Association and has passed th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2015년 7월 9일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자격검정운영위원회위원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Sunjin Welfare Social Association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2009. 10. 15 창립
-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7. 1 기재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10. 22 토론회 책자, 2015.2. 26 토론회책자-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5. 4. 1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1급, 2급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 2015. 4. 6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 2015. 4. 28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 2015. 10. 13~15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5기 개강
*수료시 시니어라이프코디네이터 2급 자격증 발급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2010.7.16), ‘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6기 -9988234」

2016년 4월 강의 개강예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5-001578호)수여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듭시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